

구 다시로 가문 서양관의 역사

구 다시로 가문 서양관은 1876 년 다시로 스케사쿠(~1890 년)에 의해 지어졌습니다. 이전에는 아리타 이인관(有田異人館)이라는 이름이었지만, 2018 년에 이름을 변경했으며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

스케사쿠는 히사토미 요지베에(~1861 년)에 이어 1856 년에 사가번으로부터 무역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다시로 문자에몬(1817~1900)의 아들이었습니다. 요지베에는 1841 년에 아리타 도자기의 해외 수출을 재개시킨 인물입니다. 상하이 시장에서 가업을 담당하던 스케사쿠는 상담 장소와 해외 무역상의 숙박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아리타 지역에 만들기로 했습니다.

건축 당시 화양절충(일본식과 서양식의 결합) 양식의 건물은 독특한 건물로 여겨졌습니다. 로비의 나선계단과 유리창, 문틀, 스테인드글라스 등 건축 당시의 특징은 지금도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. 또한, 가문의 문양을 새긴 판화를 사용해 건축 당시의 벽지가 재현되었습니다. 이 벽지는 복원 공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. 그 밖에 2 층 베란다와 건물 전체의 비품도 복원되었습니다.